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 생각해
남에게 상처 줘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5월 24일)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문화재관람료 논란 이제 文정부 나서라"

조계종 6월 20일 공식 입장… 헌법소원 언급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정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국립공원 편입과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비롯, 사찰 권리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2007년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넘도록 풀리지 않은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 논란'에 조계종이 이례적으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조계종 산하 위원회나 협의회 차원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논의와 성명 발표는 있었지만 종단차원의 별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가 논란 해소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찰이 입장료를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결국 조계종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종단의 공식 입장을 이 같이 발표했다. 오심 스님은 "최근 천은사 입장료 문제가 해결되고, 나머지 사찰을 산적처럼 호도하는 보도 · 여론이 나온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현 총무원장스님의 의지가 커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종은 먼저 대변인 오심 스님(기획실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문화 · 자연 · 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 부처 기관의 업무 통합조정 기구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정부 출범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정부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 역시 전무한 상태"라고 현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는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국가가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문화재 보유사찰의 재산을 사찰 동의절차 없이 강제로 편입시킨 뒤 이렇다 할 보상책을 내놓지 않은 데 기인한다. 특히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사찰과 협의 없이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국민 반감이 형성됐다. 당시 정부관계자는 조계종을 방문, 일방적인 국립공원 해제에 사과 입장을 전했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찰로 하여금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게 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관계 부처가 다수 중복되는 등 난항이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심 스님은 "관계 부처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나 전통사찰 업무는 문체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농림부 · 문화재청 · 국립공원관리공단 · 산림청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시 통영주민들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 요청과 같은 대응을 비롯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관람료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1962년 1월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 공포하면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해 원형보전을 강제하고 현상변경을 규제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 갈등으로 표출됨에도
정부 미온적 태도 일관하자
12년 만에 정부 강력 비판

정부 대책 강구 안 나서면
통영 한려해상국립공원처럼
국립공원 지정해제 요청도



수내동 어린이집 아이들이 100원씩 모은 더불어저금통을 전달하며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모습에서 의젓함이 느껴진다. **사진제공=아름다운동행**

동심이 전한 자비의 저금통

아름다운동행, 수내동어린이집서 더불어저금통 전달식

"집에서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면서 100원씩 모았어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 이준우(7세, 가명)

고사리 손으로 손수 색칠한 저금통에는 돈이 아닌 자비심이 담겨 있었다. 6월 19일 수요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성남시립 수내동어린이집(원장 이계화)의 7세 이하 아동들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교육 지원사업에 동참했다. 아름다운동행 측이 배포한 더불어(魚) 저금통 100여 개를 채워 이날 동행 측에 다시 전달한 것이다.

수내동어린이집에서 진행된 더불어(魚) 저금통 전달식에는 원생 125명을 비롯한 어린이집 교직원이 함께 자리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자비행보는 어른들과 다름이 없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안마해드리기, 빨래 개어보기, 양말 혼자서 신기 등 미리 부모들과 함께 설정한 '우리 가족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며 매일 100원씩 모았다. 차곡히 저금통에 모아진 아이들의 자비심은 제법 묵직했다.

아이들의 발언도 의젓했다. 전달식에서 아이들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행복했으면 한다. 아프리카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글도 배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어 생각이 들때마다 100원씩 저금통에 넣었다"고 말했다.

수내동어린이집 이계화 원장은 "이번 더불어저금통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시켜주고 싶었다"며 "각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줬다. 아이들 대부분이 모은 동전을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쓰지 않고 오롯이 저금했다. 따뜻한 마음이 하나 하나 모여 오늘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어 대견스럽고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은 "아이들이 모은 지원금이어서 더욱 소중하다. 아이들이 예쁜 마음을 내어준 만큼,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매년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더불어(魚)저금통을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에는 조계종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후원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성남 봉국사(주지 혜일)가 운영 중인 수내동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방송 사장 후보 선상신 · 최윤희 복수 추천

진흥원 이사회 19일 결정… 불교방송 이사회서 최종 선출

불교방송 차기 사장 후보에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과 최윤희 라디오제작국장이 복수 추천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6월 19일 서울 다보빌딩 진흥원 이사장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사장 후보로 선상신 사장과 최윤희 국장을 복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진흥원 사무국은 이날 이사회 논의결과를 불교방송 재단에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불교방송 재단은 진흥원의 후보 복수추천에 따라 향후 이사회를 열고 차기 사장을 선임한다. 선상신 현 사장의 임기는 9월 26일까지다.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은 1989년 불교방송 공채 1기로 입사해 보도국장을 역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이사와 본부장, 국가디자인연구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아태전략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15년 9월부터 불교방송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상신


최윤희

최윤희 라디오제작국장은 불교방송 공채 2기로 입사했으며, '거룩한 만남' '무명을 밝히고' 등 프로그램을 기획 연출했으며 편성제작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행선연구원 제3회 학술대회 –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 A4 · 5



지은이 **혜담 스님**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칠불선원, 해인사 선원 등에서 참선 수행, 해군 군종법사 대위 전역하였다.
불광사 불광법회 지도법사·조계종 총무원 홍보실장·소청심사위원·호법부장·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경향신문 정동칼럼 필진으로 깨달음의 글로써 대중과 소통하기도 했다.
역서 및 저서로 『대품반야경(상·하)』, 『반야불교 신행론』, 『新 반야심경 강의』,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방거사 어록 강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등이 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상(無常)한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닌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이들의 필독서!

진리란 무엇인가? — 붓다와 마음, 진리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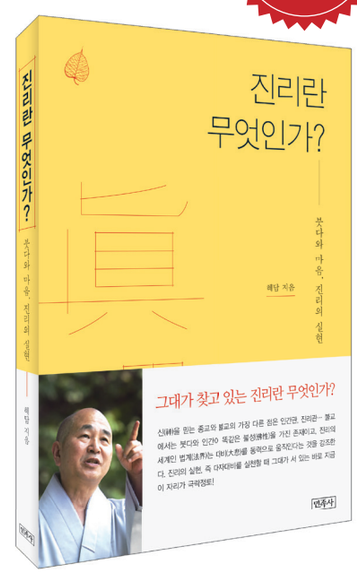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선(禪)의 관점에서 불교 진리를 밝히다!

**보통 불교의 진리라고 하면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등 불교 교리를 연상한다.
이 책은 반야·공 사상 연구와 수행·교화에 힘써 온 혜담 스님이 선(禪)의 입장에서 선불교 전체를 망라하여 붓다와 마음, 불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을 주창한 광덕 스님의 말씀이 이 책 집필의 원동력!

신(神)을 믿는 종교와 불교의 가장 다른 점은 인간관, 진리관… 불교에서는 붓다와 인간이 똑같은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이고, 진리의 세계인 법계(法界)는 대비(大悲)를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리의 실현, 즉 대자대비를 실천할 때 그대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극락정토!



혜담 지음 ‖ 248쪽 ‖ 13,800원 ‖ 변형신국판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